

1998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홍보부 -

환율·사료비 인상으로 생산비 최고치 경신

외환위기로 인하여 환율이 한때 1,900원대까지 폭등했던 지난 연초에는 사료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배합사료가격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

실제 사료가격은 1997년 8월에 비해 약 40% 이상이 상승하여 양계산물 생산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공급 마저 불안정하여 외상에서 현찰로 바뀌는 바람에 양계농가들은 사료구입에 어려움이 컸다.

사료비와 환율이 가장 높았던 연초를 기준으로 생산비를 산출하여 본 결과 육계는 kg당 1,500원선, 계란은 개당 85원선, 육용실용계 병아리는 수당 430원, 산란실용계 병아리는 수당 800원선으로 조사되었는데, 차입금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고 국제곡물가격의 하락과 미국으로부터 GSM-102 자금이 지원되면서 4월부터 사료가격은 인

하되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배합사료가격은 전년 대비 약 8.5~10%선이 인상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시 이상기후로 국제곡물 시장이 불안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GSM-102 자금배정이 미뤄지고 있어 내년의 사료수급에 다소나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여 우려하고 있다.

양계분야 리스자금 사용액 1억불 넘어

생산성 향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시설자동화에 사용된 시설리스자금 사용금액이 지난 1998년 4월 기준 본회가 조사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나, 대상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양계분야에서 사용한 리스자금은 거의가 시설자동화시 기계를 설치할 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주로 수입기자재에 편중되어 있어 수입시 환율이 1달러당 800원대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계획을 세웠으나 외환위기 발생으

로 1,900원대까지 상승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차원에서 원금상환 유예나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사용 규모가 큰 농가의 부도 사례도 있었다.

환율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300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환에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홍콩 조류독감으로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조치

지난 1997년말부터 대대적으로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하여 사람 19명이 감염되고 이 중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홍콩 수출닭고기의 80%를 수입해가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홍콩으로부터 가금육 수입을 중단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양계산업 및 기타 가금류를 보호하고 나아가 인수공통전염성이 있는 조류독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1998년 1월1일을 기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가금육 수입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해제요구가 거세 조만간에 풀릴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연식품, 대상마니커 인수

지난 1985년에 설립되어 계열화사업을 통해

육계사업에만 전념해온 닭고기 생산전문업체인 (주)대연식품이 지난 11월을 기해 대상마니커를 전격 인수하여 육계업계에 파란을 일켰다.

대연식품은 1996년에 경기도가 선정하는 중소기업대상을 받는 등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로써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만이 살아남는다는 마케팅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마니커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대상마니커는 7월에 구 천호마니커로부터 인수했던 국산종계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때는 시장점유율이 30%선 이상까지 다다랐던 마니커와 마니나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아쉬움을 남긴 바도 있다.

대연식품이 대상마니커로부터 인수한 사업장은 동두천의 도계장, 당진의 부화·종계장, 110여 계약사육농가, 마니커 브랜드 및 영업권 등인데, 1일 도계능력이 15만수이며, 계약농가도 총 170여가구로 증가하였고, 연간 사육수수도 6천만수가 넘는 규모로 사업이 확대되어 총 매출액이 1천억원대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닭티푸스 생균백신 도입여부 검토

채란양계업계를 중심으로 닭티푸스는 가장 골치아픈 닭질병의 하나로 지목이 되어 이 질병 때문에 양계업을 못해먹겠다고 하소연을 하

는 양계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독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질병 발생 양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급기야 농진청은 백색계로 사육을 전환하는 길만이 닭티푸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제시하여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파해가 매년 커지면서 업계 일각에서 외국으로부터 생산되는 닭티푸스 생균백신을 도입하여 예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회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논의된 핵심내용을 보면 두가지로 요약이 된다.

현재 외국에서 생산되는 생균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독백신 보다 우수하여 상당수의 채란농가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 수입을 서두르자는 강경론과, 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인 만큼 나라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고, 종계쪽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국가연구기관 및 일반 농장에서 충분히 야외실험을 마친후 효과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론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실증론의 의견대로 야외시험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실시 명령

양계의 경우 시설자동화의 여파로 사육밀도가 높아지면서 닭질병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한 손

실액은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그 중 뉴캐슬병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까지 희망하면 무상으로 지원하여 박멸에 강한의지를 보여왔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여론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지원방법을 고쳐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예방접종 실시 기간을 1999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여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부화장 소유자의 책임하에 실시되 수입병아리는 소유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화장은 예방접종 결과를 대장에 기록한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부화장은 병아리를 분양할 때 농가에 접종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으나 백신접종 장비가 확보되지 않았고, 접종 후 스트레스와 역가형성 문제 때문에 몇 개 부화장을 제외하고는 실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마솥」 치킨, 육계 출하중량 낮춰

종전의 후라이드치킨이나 양념치킨과는 조리방법이 다른 일명 가마솥치킨 또는 솥뚜껑치킨이 등장하여 보급이 확산되면서 육계출하 일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IMF 위기로 실업자가 늘자 차량에 탑

재가 용이한 가마솥치킨은 실업자들의 생업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져서 닭고기 소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차량소통이 빈번한 도로변이나, 도심에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파급효과가 컸다.

이 가마솥치킨이 소비확대에는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으나 농가소득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그 이유는 육계의 출하증량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마솥치킨은 1마리에 4,000원, 2마리에 7,000원, 3마리에 10,000원씩 판매하여 원재료를 낮추고, 요리시 잘 익게 적은 중량의 체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육계의 생체 출하체중도 낮추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하반기로 접어들어 더욱 뚜렷한 조짐을 보여 1.2kg 이하의 육계출하량이 증가하여 육계가격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연말에는 병아리값이 비싸지자 백세미로 대체되면서 육용종계업자들의 원성도 높았다.

양념통닭 처럼 체인화 하면서 가격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소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과잉으로 산란실용계 병아리 생산 감축

연초 감소세로 돌아섰던 산란실용계 사육수가 난가 상승과 사료공급의 원활로 서서히 증가하여 5월부터 계란출하가는 생산비선 이

하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였고, 노계도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잉생산으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란실용계 병아리 가격도 생산비선을 밑돌자 부화장과 실용계 업계에서 난가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초생추 분양을 중단한다는데 의견일치가 되어 지난 6월6일부터 7월5일까지 한달 동안 생산되는 병아리를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채란업계는 전년 초생추 판매수수 대비 약 7%의 생산조절을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채란양계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노계도태를 서둘러 7월부터 다행히 계란생산량이 감소하여 난가는 생산비선을 회복하여 10월 말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철 차내 계란우수성 광고 실시

본회는 IMF 사태 이후 소비가 위축되어 채란업계의 적자경영으로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 직면하게 되자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위기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철 차내에 계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2, 3, 5호 선에 1,683매의 전단을 부착하여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에 힘입어 5월부터 6월까지 난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가 7월부터는 생산비선 이상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만큼 광고효과는 매우 컸다고 자체분석을 한 바 있다.

이후 지하철 광고는 확대되어 대구에서도 실시되었으며, (주)에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사가 협찬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지역 1호선에서도 실시되어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채란양계인들이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우수성을 직접홍보하는 방식의 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을 제시해 주었다.

계열업체 긴급 운영자금 지원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양계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육성해온 계열화사업체들이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봉착하

여 부도직전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긴급 지원자금 570억원을 마련하여 이중 68%인 389억원을 양계부문에 배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조치를 단행하였다.

양계업 부문의 계열화업체는 주로 육계에 편중되어 계열화사업체들이 대부분 종계를 확보하고 있어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종계업체가 계열주체만의 자금지원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강력한 항의가 잇따랐다.

또한 종계업체도 어려움이 커서 도산중에 있는 만큼 계속되는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계업체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정부로부터 원종계 및 종계분야에도 90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그후 긴급자금 지원은 일반 농가는 물론 유통부문에까지 확대되어 양계업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양계**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